

# 금호아시아나 그룹 재건 가을로 늦춰진다

### 금호산업 주가 하락에 채권단 매각 일정 한달 연기

### 박 회장 금호고속 재매각 통해 인수자금 확보 나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이 지연되고 있다. 채권단이 박 회장과 개별협상을 하기로 결정한 뒤 금호산업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기업가치 평가 등 매각 절차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지분 57.5%를 보유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금호산업 가치 평가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애초 6월 말 매각가격이 나오면 7월에 협상을 벌인 뒤 8월 박 회장의 인수 여부를 결론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최근 일정을 전반적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매각가격을 산출하고 8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9월 중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1개월 여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금호산업 주가는 호반건설이 적극적인 인수사를 내비치던 3~4월에 주당 최고 3만원을 넘겼다. 그러나 채권단의 유찰 결정 이후 하락추세를 거듭하며 최근에는 1만4000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단이 가진 57.5% 전체가 아닌 경영권 지분(50%+1주)만 사들이면 된다. 앞서 공개입찰 당시 호반건설은 매입가격으로 6007억원을 제시했지만, 현재 주식이격만

따진다면 박 회장은 5300억원만 마련하면 경영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시 채권단은 호반건설에서 제시한 가격이 낮다며 유찰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에게도 매입가격으로 최소 6000억~7000억원 수준이 제시될 것으로 금융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박 회장 입장에선 금호산업을 되찾아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금호리조트' 순으로 묶여있는 회사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 금호산업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최근 인수한 그룹의 '모태기업' 금호고속을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5월26일 금호산업이 대주주인 금호터미널은 금호고속 지분 100%와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더해 41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IBK펀드와 체결한 바 있다. 금호터

미널은 6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떨어지자 다음날 잔금 790억원을 납입해 거래를 완료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금호고속을 되찾자마자 칸세스 PEF(사모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고속을 재매각한 자금을 금호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뒤 향후 금호고속을 재인수하려는 전략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호고속은 나중에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금호산업이 자칫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면 금호그룹 전체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칸세스 측이 금호고속 인수 때 '백기사' 역할을 한 만큼, 되찾는 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 재매각을 두고 채권단이 제동을 걸었다는 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반대사를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난 2일 성화봉을 등 김한 광주은행장이 광주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광주 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U대회 선수들 "땡큐, 광주뱅크"

### 광주은행 입시점포 4곳 운영 등 U대회 지원 총력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후원인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지역대표은행으로서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U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선수촌 및 미디어센터에 점포 4곳을 운영, 환전서비스 및 심판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대회기간 중 휴일 없이 저녁 7시까지 연장 근무를 기

도 했다. 광주은행은 이들 점포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 환전 업무와 함께 외국 선수들에게 광주·

전남지역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을 안내하고 있다.

업무지원에 나선 광주은행 주수영 행원은 "외국 선수들에게 연일 '땡큐, 광주뱅크'라는 감사인사를 받고 있다"며 "업무를 마감하려면 밤 9시를 넘기게 될 수 있지만,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적 스포츠 대회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이에 앞서 김한 광주은행장을 포함한 45명의 임직원이 U대회 성화 봉송에 직접 참여했으며, 관람객이 적은 평일엔 업무시간을 짧게 500여명의 임직원들이 펜싱, 유도, 수구 등 비인기 종목 단체 관람에 나서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복날 보양식의 변화

### 백숙 보다 전복·장어

올해 여름철 복날 보양식으로 백숙은 지고 전복·장어 등 수산물이 뜨는 양상이다. 12일 광주신세계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복(13일)을 앞두고 보양식 상품군 중 생닭의 매출 구성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직까지 가장 많이 찾는 보양식 메뉴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을 보면 삼계탕용 생닭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3년간 초복을 포함한 직전 1주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 전복은 1주일 사이 매출이 4배 이상 늘었고 장어 역시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백화점은 백숙용 생닭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대해 전복이나 낙지가 삼계탕 등과 함께 보양식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생닭은 평상시에도 많이 판매돼 전복보다 '복 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복더위 건강식품 인기

초복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시 서구 백화점 식품매장을 찾은 고객이 보양식 재료에 쓸 전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전남 2분기 한·육우 사육수 감소

### 통계청, 축산농민 고령화 분석

### 원유가격 안정화로 젖소 증가

광주·전남지역 올해 2분기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전분기보다 5000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한·육우는 43만4000마리로 전분기보다 5000마리(-1.2%)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와 비교하면 4만6000마리(-9.6%)나 줄었는데 축산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사육수가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젖소는 3만2000마리로 전분기보다 700마리(2.3%) 증가했다. 원유 가격 안정화로 인한 젖소 사육수가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감소와 가격 호조에 따른 출하 증가로 돼지는 전분기보다 4000마리 감소한 108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산란계(계란·식육용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는

360만마리로 전분기보다 30만4000마리(-7.8%) 줄었다. 육계(고기용 이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는 2008만5000마리로 전분기보다 726만6000마리(56.7%) 증가했으며, 오리도 459만4000마리로 전분기보다 132만5000마리(40.5%) 늘어났다. 육계와 오리의 증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안정화로 인한 입식 증가 때문으로 통계청은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전분기 대비 '악화'

### 광주상의 3분기 197개 조사

3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가 기준치(100)를 간신히 넘겼다. 지역소매유통업체들은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1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RBSI가 전분기(111)보다 8포인트 하락한 103으로 집계됐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RBSI가 100을 넘기긴 했지만 전분기보다 크게 하락해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는 나쁘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업체간 경쟁격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분기 실적치 역시 마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전분기 소비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지 못했다. 실적치는 전분기(102)보다 21포인트 하락한 81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성수기에 접어들어 편의점 등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 반면, 대형마트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몰, 슈퍼마켓은 전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에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가 예상한 가장 큰 경영여로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이 3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익성 하락(24.6%), 업체간 경쟁격화(11.4%), 인력부족(7.1%), 업체내 경쟁심화(5.2%) 등을 꼽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5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19 25 28 32 36	3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34,031,375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4,501,239	38
3 5개 숫자일치	1,460,696	1,678
4 4개 숫자일치	50,000	82,738
5 3개 숫자일치	5,000	1,364,069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은행 B/D 6층

##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